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를 April 07

• 요한복음 19:26-27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7).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아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처참하고도 잔혹한 고통의 일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키며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윤성범(전 감신대 학장) 목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류 최고의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육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신앙, 하나님 우선 신앙이 때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무심함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책임 회피나 게으름이나 기만을 경계하시는 분입니다(막 7:11).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던 신실한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인 동시에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막 3:35).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들에게 그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그 일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중요한 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맡겨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사명 받은
제자입니까?

① 나는 예수님께 어떤 제자입니까?
② 예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